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마 4:1-4)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라는 것, 그리고 사탄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일시에 준다는 것입니다.

#### 1. 마귀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주리시고 가장 약해 있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시대상황적으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잠깐 하나님도 뒤통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 인해 오는 시험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때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 사탄은 항상 자존심을 건드리며 유혹한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며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과시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시지도 않았고, 그들을 불러놓고 자기를 증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을 뿐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인생을 삽니다.

#### 3.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4절).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떡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과소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우리에게는 항상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들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물질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은 누구를 막론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시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 받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영적인 축복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도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 The First Temptation of Jesus (Matt. 4:1-4)

The temptations of Jesus in the desert were to turn stones into bread, to reveal His Sonship and favor by throwing Himself down from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and to receive authority and power over the entire world if He simply bowed down to Satan.

#### 1. Satan attacks at the most vulnerable time

Jesus faste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Satan attacked Jesus when He was hungry and weak.

Perhaps, the necessity of food and material things might be the hardest temptation to overcome for us. That's why Satan practically, logically, and according to the situation attacks this part specifically. For such things we may think that we can, for a second, push God aside and take care of them ourselves. That is just pride and ignorance in wealth. However, when we overcome and resist temptation from such things, we are able to enjoy our life in full abundance.

#### 2. Satan always tempts us while hurting our pride

Satan said to Jesus, "Are you the Son of God? If so, aren't you able to do this thing?" And so, Satan hurt Jesus' pride. But Jesus did not come to this world to prove Himself of who He was and is. He did not say, "Because I am a Son of God, I am able to show off who I am."

Jesus came to the earth to achieve God's will. Because His sense of purpose was clear, He was not disappointed about those who did not realize Him, and He had no need to fully identify Himself to them. He just walked the path of the Cross without complaint.

Our ultimate purpose in life is to give glory to God and please Him forever. We must live our life only for that purpose.

#### 3. Jesus defeats Satan with God's word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v. 4).

Jesus quoted God's word, and took the victory because He obeyed God's word. It is important for man to eat bread. The Bible has never denied this physical truth, but there is a more important thing than bread, which is firstly, and above all, to obey God's word.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Matt. 6:33).

There is a thing that we must always seek first. That is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e says that if we do so, He will give us not only what we sought but also what we did not seek.

#### My beloved Christians!

Jesus had victory. The first Adam failed but the second Adam our Lord Jesus Christ, was victorious and saved u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emptation aimed at our physical needs and pride can easily make someone fall. Whenever we undergo this temptation, we must think Jesus received the temptation in the desert and we must follow the example of Jesus. By defeating temptation with God's w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allowed to receive the blessed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together with the spiritual bless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2 흥해작전 은혜중에 진행되다

##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

####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분당

우리 교회 박노철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는 2012 흥해작전은 많은 성도들이 승리를 위한 행군에 동참하여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흥해작전 첫 날인 6일 분당 2, 3층을 성도들이 가득 채웠고, 흥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흥해작전의 뜨거운 열기를 온라인 공간에 까지 전하기 위해 멀티미디어단은 [흥해작전 인증샷 이벤트]를 개최하여 흥해작전에 참석중인 성도들의 다양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서울교회 공식 페이스북인 '익투스(<http://fb.com/seoulchthus>)'에 접속하여 사진을 등록하거나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익투스에 게시물 공유를 요청하여도 된다. 등록된 사진은 호응도를 기준으로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린다.

또한 전교인 '회.복.부.흥'으로 4행시짓기, 영어에

배부는 'B.R.I.D.G.E'로 6행시를 공모 중이다. 흥해작전기간 중 영아·유아·유치·유년·초등부는 7번, 중등·고등·대학·청년부는 14번 출석하면 개근상을 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서 주무시는 성도들을 위해 남성은 702호, 여성은 706호에 숙소가 마련 되어 있으며 아침에 출근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식사도 제공한다. 흥해작전 기간 중 금요일도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흥해작전 주제는 “BRIDGE 2012 회복과 부흥”이며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의 역사-부제와 같이 이 나라의 미래와 소망인 청년부 이하 다음 세대들의 꾸준한 참여는 교회의 큰 축복이고 은혜이다.

흥해를 나 혼자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가야 할 책임의식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함께 하여 국가와 교회, 개인의 흥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란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52]

(문 4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메추라기를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 일로 큰 재앙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 민수기11장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실 때 그들은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며 탄식의 원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정육을 돌우는 부추와 파와 마늘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평이 심해지자 자신에게 주신 지도력을 상실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까지 했던 것입니다.(민11:15)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 70명의 경건한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백성의 짐을 모세 혼자 지지 않게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 때문에 울부짖고 있으니 내일 고기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하루 이를 닦새 열흘 스무날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게 할 터인데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민 11:19-20)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시106:1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준비했으나 미련한 인생들은 필요하지 않은 악을 구하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나 결국 그들에게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지면 위 두 규빗 썸에 내리게 하셨다(민11:31)고 했습니다. 메추라기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낮게 날아가도록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작대기로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쳐서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날 종일 종아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가 열 호멜(한 호멜은 2.2킬로리터)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욕심껏 퍼두었다고 했습니다.(32) 그러나 뜨거운 사막지대에서 죽은 새는 곧 부패하게 되고 냉동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먹다 남은 것을 쌓아놓고 먹으려 했으니 부패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나지 않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재앙으로 변질시키고 만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대학부 Home Coming Day

### 6월 23일(토) 오후 3시-10시

2012년 6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교회 1층 웨스트민스터홀과 8층 만나홀에서 대학부 Home Coming Day '놀러와'를 연다. 대상은 서울교회에 대학부에 명단에 속해 있지만 오랫동안 참석하지 않고 있는 지체들과 서울교회 대학부를 통해 성장한 OB(청년2부 이상)이다. 많이 참석하여 젊은 세대로서의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기 바란다.

## 차량관리부원 모집

주일 성도들의 주차를 돕기 위한 차량관리부원의 인원이 모자라 차량관리부에서 추가 부원을 모집한다. 문의는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 신앙강좌 2부 1학기 수료자 명단

김웅기, 김정자, 김철문, 박광수, 박인규, 최향숙, 이갑수, 이우식, 조봉자, 김미성, 오세백, 김태욱, 오민세, 김정순, 이영재, 박중구, 이한룡, 유관모, 황현숙, 선병욱, 윤금숙, 이진화, 장미례, 문분순, 윤운, 이태원, 이윤영, 오치열, 이종창, 서경학, 안준홍, 이창희, 정현구, 최복희, 김지은, 유덕자, 오가연, 장호영, 박화실, 이미연, 이유성, 조복자, 곽숙, 김해수, 박공순, 박준선, 오형숙, 김태희, 박은정, 김양경, 한명희, 백경애, 이경화, 류기승, 강신행, 박인자, 김설아, 신호영, 흥현미, 최죽희, 천금엽, 주경자, 총63 명.

## 캄보디아단기선교팀 후원

캄보디아 단기선교 물품(어린이용 : 크레파스 등 문구류, 기타 잡화)을 기증받는다. 뜻이 있으신 성도들의 많은 후원을 바란다.

(문의처 : 회계 김정제집사 010-8394-5310)



홍해작전 EVENT

인증샷 올리고 선물받자!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



홍해작전 기간중 가족 또는 본인의 인증샷을 서울교회 잇투스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페이스북 '좋아요'를 기준으로 순위를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중복 등록 가능)



2012단기선교를 준비하며

톤레삼 호수의 나라 캄보디아



김금준 집사 (2012 캄보디아단기선교단 단장)

할렐루야! 지난 3월 세계선교대학에 참석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우고 준비하던 2012 캄보디아 단기선교가 어느덧 다음달(7월 23일~31일, 지도:박광일목사)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가야 할 금년 단기선교 지역이 이재율·박병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캄보디아로 정해졌을 때만해도 멀리 느껴졌던 그 나라가 그 동안 매주 기도와 교육으로 준비하면서 저희 모든 단원들은 캄보디아 캄퐁츠낭 지역주민이 다 된 것처럼 그 나라와 매우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대사에서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6.25전쟁 때에는 우리나라를 물자로 지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너진 경제부흥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갑니다. 당장의 가시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된 심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더 긴급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들의 쓰라린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보듬고 같이 울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곳에는 서울교회의 지원으로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단의 주 사역은 교회 헌당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경학교(4팀), 어머니교실(1팀), 아버지학교(1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선교단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지원해주시는 캄보디아 선교사도고팀 여러분과 특별지도해 주시는 이갑진장로님 그리고 선교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도움에 힘입어 모든 단원들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선교의 열정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기후 속에서도 현지에서 열심히 복음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재율·박병진선교사님의 사역에 우리 단기선교팀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의 풍요로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기선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택집사·권사 교육을 시작하며

신앙선배들의 뒤를 따라



승미령 집사 (1교구 피택권사)

저희 가족은 2003년 부활주일에 서울교회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서 등록은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예배 마치면 반갑게 인사할 얼굴 하나 없는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음을 아시는 듯 새가족부 교사들은 주말마다 전화 주시고 주일이면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찾아 간 다락방에서는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알뜰이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의 사랑 덕분에 행복하게 뿌리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그 현장에는 언제나 묵묵히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논현동

시절 밤새워 수 백 개의 김밥을 말면서도 마냥 기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으며 귀한 직분에는 큰 책임과 사랑이 요구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분한 사랑을 입고 피택 권사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죄인 된 저를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아름다운 본을 몸소 보여주시는 선배 권사님들이 계시니까요. 받은 대로 본 대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애쓰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과 회복의 언덕에 이르도록 기꺼이 등을 내어주는 다리(BRIDGE)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지동 집사 (1교구, 피택집사)

매주 토요일 아침 6시가 되면은 자명종 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교회로 뛰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일로 바쁘고 정신 없이 지내다가 목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하나씩 배워가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을 봅니다. 험기와 분노감이 많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45명의 피택집사님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기대감과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101호실에서 배우면서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과 박노철 목사님의

강의처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 매일의 경건 일지를 쓰면서 기도 생활과 성경통독과 전도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변화하는 삶을 기대해봅니다.

교육이 끝날때까지 더욱 주님께 집중함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이 훈련 받음으로 모세처럼 억눌리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위해 살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시어 모든 피택집사님들이 임직식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교구 한미음 한가족 잔치를 마치고

# 미사리 강가

정애신 권사(11교구)

흐드러진 6월의 숲속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미사 강가에  
울림픽 건아들이 노 저었던 이곳  
오늘은 주님의 자녀들 함께 모여  
사랑과 용서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사랑의 띠로  
하나되게 하소서.

억 만년 겨레의 젓 줄기 노들 강  
만 목숨 만만 목숨 이 물 먹고  
동서남북 뿌린 복음 이 땅을 밝히었다.  
요단강에 세례 받던  
주님 생각하며  
우리 몸과 마음  
정결케 하세.

6월은 현충의 달  
엄숙한 마음 상념에 젖어  
나라위해 가신님 기리며  
선진들의 값진 희생  
하늘에서 편히 쉬길 기도 드리세.

주님 주신 아름다운 이 강산  
영원한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며  
나라 사랑 형제 사랑  
함께 이루어.



한미음 한가족 잔치에 참여한 11교구 식구들

성경통독반을 마치고

#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며

현승희 집사(11교구)



성경통독 개강 첫날! 봄의 따뜻한  
꽃향기를 품고, 복도를 지나, 602호  
를 향해 분주히 발걸음 하시는 성도님  
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다렸던 성경  
통독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함에  
들떠 살짝은 흥분된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손과 품에 가득 안고 들어오  
시는 황광 목사님의 밝은 얼굴도, 우리 모두에게 산뜻  
한 봄날의 설레임으로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어! 등록하신 분외에 계속, 계속 들어오시는 성도  
님들! 강의실이 짝 차 만석이 되었고 성령 충만함이  
이미 이 방 안에 가득차음이 느껴졌습니다.

통독하기 전에 늘 목사님의 구약의 저자와 기록 연  
대 및 신학적 집필 동기와 배경, 내용 전개, 주제, 핵심  
과 특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한 후 차  
분한 음성과 함께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숨죽이는 조용함과 동시  
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마  
음판에 새기며 내려갔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어 흐르고 흘러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에 무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휴식시간 동안 환한 미소로 서로를 향하여 말은 없

## 『주일 삼성로 주차시』 성도의 품위 지키도록

우리교회는 강남구청의 협조를 얻어 주일 예배시간  
에 삼성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의 막무가내식 양제 주차로 인  
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해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삼성로 주정차가 어려워지게 될 수 있다.(예: 교회에서  
세운 주차금지 표지를 옮기고 주차, 아파트 진출로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여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측  
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 발생, 횡단보  
도 주차 등)

예배드리러 오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  
도로서의 품위를 지켜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주일 삼성로 주정차시(홍해작전 새벽기도 시  
에도 동일) 버스 정류장 표지 전후 각 10M 씩과 횡단보  
도 등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를 반  
드시 지켜주시 바란다.

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눈망을 속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차 있을  
을!

10주가 되는 마지막 날! 성경통독 10주 과정이 끝  
났습니다. 처음에 보았던 모습들이 오늘은 더욱 성  
화된 듯했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풍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을 학기에 다시 있을 구약 성경  
통독반(역대상~말라기)을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부장/윤석원 집사의 연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송재월  
집사의 지휘로 Jesus, Our True Friend (W.J.Kirkpatrick  
곡), Blessed Assurance (Phoebe P.Knapp 곡) 등 세곡을  
연주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성도(호산나찬양대)와  
웹시바중창단이 협연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린다.

###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일(월) 서울장신대 이번 학기 종강강의 후  
몽골로 출국한다. 12일(화) 올란바타르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한다. 13일(수) 재몽골선교사들과 '선교와 대학' 주제로  
간담회를 인도한다. 14일(목) 귀국하여 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여호수아회)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16일(토) 종교개혁500  
주년기념사업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개업 : (7교구) 6월15일 백승갑 집사 박길자 집사 (주)이지바이  
총정로점 중구 중림로171층 3호 02-392-8978

■ 주간식당봉사 : 안드레선교회(6.10) 베드로선교회(6.17)

■ 금주의 식사 : 이진수 장미리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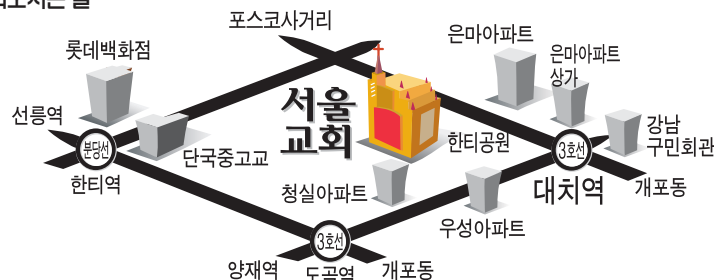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계속 되는 홍해작전에 더욱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 회복과  
부흥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2. 캄보디아와 미얀마에서 진행 되는 교회 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어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3.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